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21년 4월

본 자료는 전월(2021.3.1.~2021.3.31.) 제공되었던 주요 동향 및 주요 국제 표준화 회의에 참석한 표준화 전문가 활동 보고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 게시물 보기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 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목차

Ⅰ. 주요 ICT 표준화 기구의 활동 동향

1. ITU, 자연재해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포커스그룹(FG-AI4NDM) 신설 21.02.09
2. ITU, WTDC 2021 앞두고 지역 디지털 우선순위 공식화 21.03.11
3. ITU, 5G 지원을 위한 전송 네트워크 최적화 기술 표준 제정 21.03.15
4. ITU-UNESCO 브로드밴드 위원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미래 구축에 대한 논의 21.03.23
5. ISO, '전략 2030' 발표 21.02.23
6. 유럽 ETSI, 산업 및 정부 기관 대상 블록체인 보고서 발표 21.02.15
7. 유럽 ETSI, 세분화된 접근 제어를 위한 미들박스 보안 프로토콜 스펙 발표 21.03.02
8. 유럽 ETSI, 디지털 서명 보호를 위한 기술 규격 발간 21.03.17
9. 유럽 CEN-CENELEC, AI에 대한 합동기술위원회 신설 21.03.03
10. 미국 ATIS, 5G 버티컬 플랫폼 평가 보고서 발간 21.03.24
11. OASIS Open, 서비스 메타데이타 퍼블리싱(SMP) v.2.0 승인 21.03.02
12. Ecma, 백신 여권에 대한 국제 표준화 피드백 요청 21.03.12

Ⅱ. 주요 국가의 ICT 표준화 정책 관련 동향

13. 일본 총무성, 제26회 일본-EU ICT 정책 대화 (표준화 및 공동연구) 21.02.26
14. 일본 총무성, 제5회 일본-독일과의 ICT 정책 대화 개최 21.03.15
15. 유럽 StandICT.eu, ICT 표준화 동향파악 플랫폼인 'EUOS' 신설 21.03.09
16. 유럽연합, 2021 ICT 표준화 롤링 플랜 발표 21.03.18

Ⅰ. 주요 ICT 표준화 기구의 활동 동향

1. ITU, 자연재해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포커스그룹(FG-AI4NDM) 신설 (02월 09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자연재해의 확산과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해 자연재해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포커스그룹(Focus Group on AI for Natural Disaster Management, FG-AI4NDM)을 신설하였다.

2005년부터 2015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15억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군소도서개도국(SIDS)과 최빈개도국(LDC)의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FG-AI4NDM은 세계기상기구(WMO) 및 유엔환경프로그램(UNEP)과 협력하여 자연재해관리를 위한 AI의 국제적 행동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해 모범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며, 1차 회의는 2021년 3월 15일-17일 개최되었다.

FG-AI4NDM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관리를 위한 AI (데이터, 모델링 및 통신기술의 맥락에서) 사용을 조사하기 위해 전 세계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커뮤니티를 구축
2. UN의 더 좋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호연결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본 커뮤니티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3. 자연재해관리를 위한 AI 분야 (데이터, 모델링 및 통신기술의 맥락에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결과물을 포커스그룹 활동에 최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 자원이 제한된 취약지역에 초점을 두고, AI (데이터, 모델링 및 통신 기술의 맥락에서)가 자연재해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아직 지원하지 않은) 영역을 파악
4. 자연재해관리에서 데이터, 모델링(재구축, 예측, 프로젝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하는 AI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파악
5. 자연재해관리에서 데이터, 모델링(재구축, 예측, 프로젝팅),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AI 사용에 대한 현재의 모범 사례를 파악
6. 사용 사례(예: 특정 자연재해유형)와 관련된 자연재해 데이터를 위해 글로벌 데이터 저장소(클라우드솔루션 포함) 개발 활동을 지원
7. 재해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구현 지원
8. 보완적 활동 조율을 위해 다른 ITU-T 연구반(Study Group)과 연락하고 협력

☞ (기사원문) https://www.itu.int/en/mediacentre/Pages/PR01-2021-AI-capabilities-natural-disasters.aspx

2. ITU, WTDC 2021 앞두고 지역 디지털 우선순위 공식화 (03월 11일)

ITU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WTDC-21)* 아시아태평양지역 준비회의가 2021년 3월 9일-10일 개최되었다.

* WTDC-21은 2021년 11월 8일-19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 4년간 디지털 개발을 위한 글로벌 계획을 수립하고, ITU 전기통신개발부문(ITU-D)의 미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준비회의 참가자들은 2022-2025년 주요 우선순위로 다음을 제안하였다.

- 태평양 제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요구사항 해결
-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고, 포괄적 디지털 사회 조성을 위한 ICT 기술 활용
- 디지털 연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프라 개발 촉진
- 정책 및 규제 환경 활성화
- 안전성과 탄력성이 확보된 ICT 환경에 기여

☞ (기사원문) https://www.itu.int/en/mediacentre/Pages/CM023-2021-RPM-Asia-Pacific-WTDC-21-digital-priorities.aspx

3. ITU, 5G 지원을 위한 전송 네트워크 최적화 기술 표준 제정(03월 15일)

ITU는 IMT-2020/5G 지원을 위해 메트로 전송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새로운 기술인 "메트로 전송 네트워크용 인터페이스(ITU G.8312)* 표준을 제정하였다.

* ITU G.8312 "Interfaces for the metro transport network"

위 기술은 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전 범위의 OAM(운영, 관리, 유지보수) 기능을 제공하여, 분산 및 중앙 집중식 무선액세스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전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TU G.8312 표준은 IEEE 802.3의 이더넷 기술과 OIF 포럼의 플렉서블 이더넷(FlexE) 구현 로직을 캐리어급 전송 네트워크의 요구사항에 맞게 적용하고 있으며, ITU G.8312에서는 연결검증, 성능모니터링, 경로상태, 지연측정과 같은 OAM 기능을 제공한다.

5G 전송 표준화는 ITU-T 연구반 15(Study Group 15, 이하 SG 15)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ITU G.8312와 함께 ITU G.8310*은 2년 동안 200건 이상의 기고서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 ITU G.8310 "Architecture of the metro transport network"

SG 15 작업은 2018년 전송 네트워크 수요 측면에서 5G 무선 요구사항을 기술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보고서는 새로운 5G 요구사항에 대한 SG 15의 의견을 파악하고, 3GPP, CRRI, NGMN의 기구들이 SG 15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기구의 규격을 전송 네트워크 관점에서 다룬다.

* GSTR-TN5G - Transport network support of IMT-2020/5G (October 2018)

ITU G.8310과 ITU G.8312는 5G 모바일 네트워크 전송에 대한 ITU G.8300 시리즈의 최신 표준이며, 위 시리즈의 첫 번째 표준인 "IMT-2020/5G 지원을 위한 전송 네트워크의 특성(ITU G.8300)"은 프런트홀, 미드홀, 백홀을 정의하고 5G 전송 관련 이들의 요구사항과 특성을 제시하여 5G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전송 네트워크 아키텍처 관계를 설명한다.

SG 15는 전송, 액세스, 홈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인프라를 정의하여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104건의 ITU 표준을 개발 중이다.

☞ (기사원문) https://www.itu.int/en/myitu/News/2021/03/15/12/36/New-ITU-standards-optimize-transport-networks-support-for-5G

4. ITU-UNESCO 브로드밴드 위원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미래 구축에 대한 논의 (03월 23일)

ITU-UNESCO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1분기 정기 회의에서 코로나시대 이후 디지털 미래 구축에 대해 논의하였다.

* ITU-UNESCO 브로드밴드 위원회: 2010년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디지털 협력을 위한 다중-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로 구성. 매년 광대역 현황 보고서와 디지털 보건, 교육, 온라인 안전 등 30개 이상의 주제에 대한 연구 성과와 보고서를 발간

디지털 협력을 활용하여 코로나시대 이후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또한, 21세기 경제 모델, 디지털 교육, 감염병 관리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검토하고, 디지털 보건, 가상 보건 및 관리에 대한 새로운 작업반을 제안하였다.

☞ (기사원문) https://www.itu.int/en/mediacentre/Pages/pr03-2021-Broadband-Commission-inclusive-post-COVID-digital-future.aspx

5. ISO, '전략 2030' 발표 (02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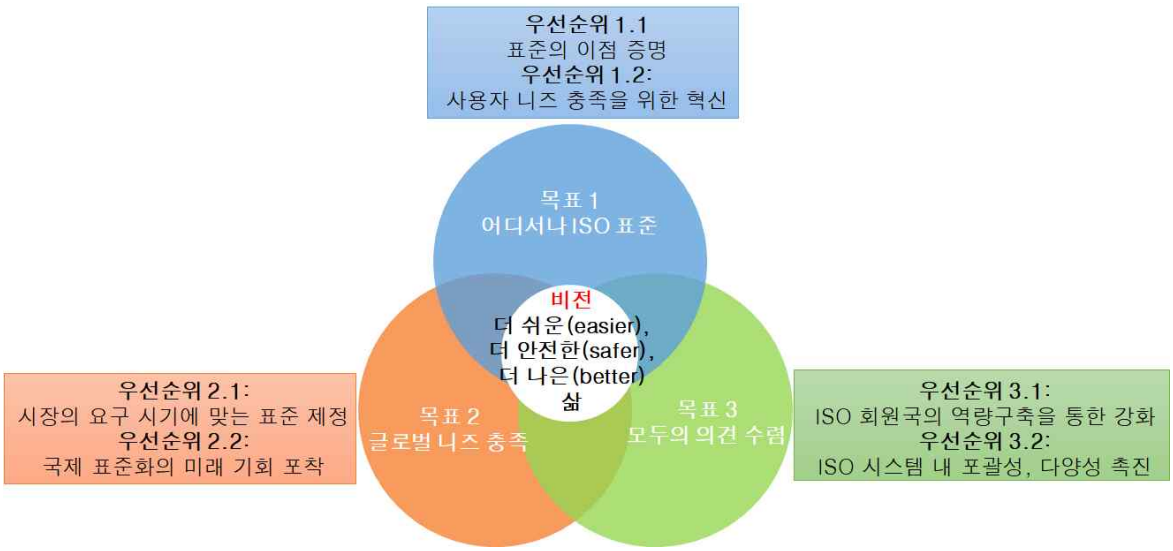
ISO는 향후 10년에 대비하여,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비전으로 하는 '전략 2030'(ISO strategy 2030)을 발표하였다.

금번 전략은 기존에 수립해온 5년 주기의 전략에 비해 지속가능성, 복원성, 평등과 같은 환경 및 인간적 과제 대응과 표준화 시스템 자체의 진화를 위한 일관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전략이 수립된 배경으로는 국제 표준의 영향력이 높은 경제, 기술, 사회, 환경 분야 각각에서 무역과 불확실성, 디지털의 영향, 사회적 기대와 활동, 지속가능성의 시급성 등을 꼽고 있으며, 전략의 구성은 비전, 미션, 3가지의 목표, 6가지의 우선순위로 다음과 같다.

비전(Vision)	⇒	미션(Mission)	⇒	목표(Goals)	⇒	우선순위(Priorites)
왜 /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 어떻게 하는가		비전과 미션을 현실화하기 위해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어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가

- 비전 :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 (Making lives easier, safer and better)
- 미션 : 회원과 이해관계자를 통해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국제 표준을 위해 참여자를 모으고, ISO 표준은 글로벌 무역을 지원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을 진전시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강과 안전을 증진함
- 목표 : (1) 어디서나 사용되는 ISO 표준, (2) 글로벌 니즈 충족, (3) 모두의 의견을 청취
- 이와 함께, 본 전략에서는 목표 달성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현황 측정과 성과 평가를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를 제시



☞ (기사원문) https://www.iso.org/news/ref2630.html

6. 유럽 ETSI, 산업 및 정부 기관 대상 블록체인 보고서 발표 (02월 15일)

유럽표준화기구인 ETSI 내 허가형 분산원장 산업규격그룹인 ISG PDL(Permissioned Distributed Ledger)에서는 일련의 블록체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된 보고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 및 정부 기관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에 대한 데이터 기록 준수,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 스마트 계약을 다룬다.

- 데이터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적용 및 준수(ETSI GR PDL 002) : 유틸리티와 관련 산업에서 데이터소스(센서, 게이트웨이 등)를 분산원장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관(conduits)의 의미를 설명. 또한, 데이터인프라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측면에서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정의함. 허가형 분산원장(PDL)을 머신의 전체 생태계로 통합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통합이 여러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간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전한 데이터 교환을 제공함을 보임
-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ETSI GR PDL 003) : 통신사업자, 인터넷 및 OTA(over-the-top)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구현을 돕기 위해, 허가된 원장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와 운영 요구사항을 기술함. 여기에는 as-a-service 패러다임과 PDL 인프라 거버넌스 측면을

강조하는 프로비저닝 모델이 포함됨

- 스마트 계약 : 시스템 아키텍처 및 기능 사양(ETSI GR PDL 004) : 스마트 계약과 이에 대한 계획, 코딩, 테스팅에 대한 구조와 기능적 프레임워크를 정의. 스마트 계약은 분산원장 시스템에 저장된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임. 스마트 계약이 단순한 코드이기 때문에, 만약 코드가 제대로 계획, 설계, 코딩, 테스트되지 않으면 해당 시스템을 외부 공격과 내부 오류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

ETSI ISG PDL은 허가형 분산원장 운영을 위한 기반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허가형 분산원장은 기술적 및 법적으로 산업 및 정부 기관의 비즈니스지향 유즈케이스에 적합하다. PDL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거래 기록 비용과 지연 감소, 합의 알고리즘 비용 절감, 오프라인 운영, 참여자 간의 공정성 속성을 가능하게 하며, 법적인 측면에서는 외부의 법적계약 지원 또는 중요 부문에서의 규제 집행을 포함하고 있다.

☞ (기사원문) https://www.etsi.org/newsroom/press-releases/1884-2021-02-etsi-blockchain-group-releases-first-reports-targeting-industry-and-governmental-bodies

7. 유럽 ETSI, 세분화된 접근 제어를 위한 미들장비 보안 프로토콜 규격 발표 (03월 02일)

ETSI는 미들 장비* 보안 프로토콜 시리즈의 Part2 부분인 ETSI TS 103 523-3: 전송계층 MSP(TLMSP, Transport Layer MSP)[1] 기술규격을 발표하였다.

* 미들 장비(middle box): 특정 지능적 기능을 가진 네트워크 중간자로서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비. 미들 장비에는 방화벽,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부하 분산 장치, 정책 기반 터널링 등이 있다. (출처: TTA IT용어사전)

금번 시리즈는 차세대 미들장비의 보안 및 기능적 운영이 가능한 프로토콜 규격으로, ETSI CYVER 기술위원회에서 개발하였다.

미들 장비는 성능관리가 필요한 훨씬 빠른 네트워크를 갖춘 새로운 5G 배포부터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처하는 진화된 위협 방어로의 신규 사이버 공격의 저항과 VPN 제공에 이르기까지 현대 네트워크에서 필수적이다. 네트워크 운영자,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자, 기업 및 소규모 기업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다양한 사이버 방어기술은 이러한 미들장비를 필요로 한다.

현재의 솔루션은 종종 보안 메커니즘을 깨거나 또는 엔드포인트의 명시적 권한 부여에 대한 요구를 무시한다. 일부 암호화 프로토콜은 기업 게이트웨이에서 완전히 차단되어 사용자가 안전하지 않은 프로토콜로 되돌아 갈 위험이 있고, 점차 많은 데이터그램 네트워크 트래픽이 암호화됨에 따라, 사이버 방어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엔드포인트에 의한 명시적 권한 부여를 무시하는 침입적인 '중단시키고 검사하는'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및 신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1) ETSI TS 103 523-3: 전송계층 MSP(TLMSP, Transport Layer MSP) 원문: https://www.etsi.org/deliver/etsi_ts/103500_103599/10352302/01.01.01_60/ts_10352302v010101p.pdf

ETSI TS 103 523-2(MSP Part2)는 여러 트래픽 부분에 세분화된 접근과 미묘한 권한을 허용하는 프로토콜을 지정하여 미들장치가 빠른 속도의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면서 안전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규격은 다른 미들장치에 대한 세분화된 허가권과 접근을 부여하는 프로토콜인 TLMSP를 정의하여, 특정 기관이 사이버 방어 목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제어와 무단 접근에 대한 방어를 허용한다. TLMSP는 최소한의 권한으로 보안원칙에 따라 엔드포인트가 통신을 각기 다른 읽기, 삭제 및 쓰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콘텍스트(contexts)'로 분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기사원문) https://www.etsi.org/newsroom/press-releases/1893-etsi-releases-middlebox-security-protocols-specification-for-fine-grained-access-control

8. 유럽 ETSI, 디지털 서명 보호를 위한 기술 규격 발간 (03월 17일)

유럽의 ETSI는 디지털 서명 보호를 위한 기술 규격(ETSI TS 119 182-1)*을 발간하였다.

* ETSI TS 119 182-1 : Electronic Signatures and Infrastructures (ESI); JAdES digital signatures; Part 1: Building blocks and JAdES baseline signatures

ETSI TS 119 182-1은 PKI(public key infrastructure)가 지원하는 디지털 서명과 발신자가 중요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여 거래 출처를 인증하는 공개키 인증서를 위한 규격이다.

약 4,000개의 은행이 온라인 거래 보호를 위한 API에 다양한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며, 본 규격을 통해, 은행 등 디지털 경제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디지털 서명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eIDAS, No 910/2014)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보안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

☞ (기사원문) https://www.etsi.org/newsroom/press-releases/1898-etsi-standard-to-secure-digital-signatures-solves-issue-for-4-000-banks

9. 유럽 CEN-CENELEC, AI에 대한 합동기술위원회 신설 (03월 03일)

유럽의 CEN과 CENELEC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AI 백서'와 '독일 AI 표준화 로드맵' 대응을 위해 AI에 대한 합동기술위원회 21(CEN-CLC/JTC 21)를 신설하였다.

합동기술위원회는 AI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표준 개발·채택과 타 기술위원회에 지침을 제공하며, ISO/IEC JTC 1과 산하의 SC 42에서 개발 완료 또는 개발 중인 국제 표준을 파악하여, 이를 채택한다. 또한, 유럽 시장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표준화를 수행하며, 유럽연합의 법률, 정책, 원칙, 가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 (기사원문) https://www.cencenelec.eu/News/brief_News/Pages/TN-2021-013.aspx

10. 미국 ATIS, 5G 버티컬 플랫폼 평가 보고서 발간 (03월 24일)

미국의 ICT분야 표준화기구인 ATIS*는 '5G 버티컬 플랫폼 평가 보고서'(5G Vertical Platform Assessment Report)를 발간하였다.

* ATIS(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약 150개의 글로벌 ICT 기업의 연합으로, 5G/6G, IoT, 스마트시티, AI, 분산원장/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비상통신 등에 대해 다룸. 미국표준협회(ANSI)에서 인정한 표준 개발기구이며, 3GPP, oneM2M 등에 북미 대표 멤버로 참여

보고서는 산업/제조, 커넥티드 카, 스마트시티, 공공안전, 의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버티컬 산업과 다양한 부문에서 5G 기능 활용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사례를 분석하고, 버티컬 산업에서 5G 혁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공통 플랫폼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ATIS는 본 보고서를 통해, 모든 버티컬 산업에서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5G 플랫폼 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대함을 밝혔다.

☞(기사원문) https://www.atis.org/press-releases/atis-5g-vertical-platform-study-identifies-how-industries-can-integrate-5g-innovation-into-their-business-transformation-strategies/

11. OASIS Open, 서비스 메타데이타 퍼블리싱(SMP) v.2.0 승인 (03월 02일)

OASIS Open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참여자 간의 동적 검색 및 기능의 매칭을 촉진하고 상호운용이 가능하고 안전한 네트워크에서 주소 지정 및 라우팅을 통한 거래 파트너를 연결하는 표준인 서비스 메타데이터 퍼블리싱(SMP, Service Metadata Publishing) v2.0 을 승인하였다.

SMP는 공공전자조달 및 전자송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기 위하여 OASIS Business Document Exchange TC가 개발한 표준으로, 다수 대 다수의 거래를 지원하는 전자배송 네트워크에 엔드 포인트 성능을 등록하기 위한 비교적 간단하지만 강력한 규격이다.

SMP v2.0은 특정 기관들끼리 '접근 포인트(Access Points)'라 불리는 중간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문서를 교환하는 4-코너 네트워크 안에서 서비스 메타데이터를 퍼블리싱하기 위한 규격을 설명한다. 4-코너 네트워크에서 비즈니스 문서를 성공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한 기관이 거래 파트너가 자동으로 수신받고 처리할 수 있는 문서의 유형과 지원하는 전송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등과 같은 수신받는 기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며, 거래 파트너끼리는 반드시 SMP 서비스를 통해 그들이 구현하는 비즈니스 절차에 따른 서로의 네트워크에서 사용가능한 메타데이터를 구현해야 한다.

SMP의 금번 규격은 서비스 메타데이터 게시자와 엔드포인트 정보를 검색하려는 고객 간의 요청 또는 응답에 대한 교환을 설명한다. 일단 연결되면, 기업과 정부기관은 다른 파트너의 네트워크에 쉽고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 파트너간의 협상 프로세스가 더 원활해지고 일상 전자거래에서 많은 마찰이 제거된다.

OpenPEPPOL*은 PEPPOL(Pan-European Public Procurement Online)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필

수적 구성요소로 SMP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구매자 및 판매자는 전세계 총 32개국에서 전자적 조달의 다양한 단계와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기타 비즈니스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촉진하는 수신기능을 게시할 수 있다.

* OpenPEPPOL : 벨기에 법(Association Internationale Sans But Lucratif – AISBL)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국제협회로서 PEPPOL 스펙의 개발 및 유지관리를 담당

☞ (기사원문) https://www.oasis-open.org/2021/03/02/oasis-open-approves-smp-v2-0-standard-for-connecting-trading-partners-in-a-4-corner-network/

12. Ecma, 백신 여권에 대한 국제 표준화 피드백 요청 (03월 12일)

글로벌 ICT 표준을 개발하는 표준화기구인 Ecma의 TC51 위원회는 백신 여권의 국제 표준화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Ecma TC51 위원회는 글로벌 의료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Ecma-417 표준을 개발한 바 있으며, Ecma-417은 동일한 표준인 ISO/IEC 24643으로도 발표되었다.

Ecma TC51 위원회는 백신 여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다양한 기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2021년 2월 14일 영국왕립학회(UK Royal Society)에서 발표한 백신 여권에 대한 12가지 과제에 대해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 (기사원문) https://www.ecma-international.org/news/ecma-tc51-committee-is-calling-for-participation-and-for-feedback-from-interested-stakeholders-on-the-development-of-a-vaccine-passport-international-standardization/

Ⅱ. 주요 국가의 ICT 표준화 정책 관련 동향

13. 일본 총무성, 제26회 일본-EU ICT 정책 대화(표준화 및 공동연구) (02월 26일)

일본 총무성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보통신총국(DG-CONNECT)는 정기적인 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26회 회의에서는 규제 개혁, 사이버보안, 5G/6G, 표준화 및 공동연구 등 ICT 정책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Beyond 5G(6G)와 관련하여, 국제공동 연구개발과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Beyond 5G(6G)의 조기 실현을 위한 일-EU간 협력을 확인하였다. 표준화 및 공동연구와 관련하여, 표준화에 관한 일-EU 협력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ICT 분야의 일-EU 공동 연구의 향후 방향을 공유하였다. 또한, 국제 표준화에서 일-EU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 표준화를 염두한 일-EU 공동 연구 논의를 지속키로 하였다.

☞ (기사원문)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tsushin08_02000116.html

14. 일본 총무성, 제5회 일본-독일과의 ICT 정책 대화 개최 (03월 15일)

일본 총무성과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양국 간 ICT 분야에서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해 2021년 3월 11일 제5회 일본-독일 ICT 정책 대화를 개최하였다.

금번 5회 회의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플랫폼 정책, 데이터 활용 및 AI·IoT, 5G/Beyoud 5G(6G)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 양국 간의 협력과 함께, G7, G20,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 표준화 활동에서의 협력 의견 교환
- 디지털 플랫폼 정책 : EU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과 경쟁법(Competition Law 4.0)에 대한 설명과 최근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 논의
- 데이터 활용 및 AI·IoT : 제조 현장에서의 무선 통신을 최적화를 위한 일본-독일 공동 연구 진행 상황 공유, 차기 공동 연구 논의
- 5G/Beyoud 5G(6G) : 일본-독일 공동 프로젝트 검토

☞ (기사원문)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tsushin08_02000117.html

15. 유럽 StandICT.eu, ICT 표준화 동향파악 플랫폼인 'EUOS' 신설 (03월 09일)

유럽 'StandICT.eu 2023' 프로젝트*에서는 ICT 표준화 동향 파악을 위한 EUOS(European Observatory For ICT Standardisation) 플랫폼을 신설하였다.

* StandICT.eu 2023 프로젝트 :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ICT 국제 표준화에서 유럽 전문가들의 위상 강화를 위

해 유럽연합의 Horizon2020(연구 및 혁신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전문가들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전문가당 최대 8,000유로) 등 수행

EUOS는 글로벌 ICT 표준화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디지털단일 시장의 핵심 ICT 분야와 EU ICT 표준화 롤링플랜에 영향을 미치는 ICT 표준, 우선순위, 필요성에 대해 ICT 전문가 커뮤니티에 시의적절하고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또한, ICT 표준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한 곳에 모이는 'Go-To place'로써 인터랙티브 플랫폼을 제공하고 보상 체계(rewards scheme)를 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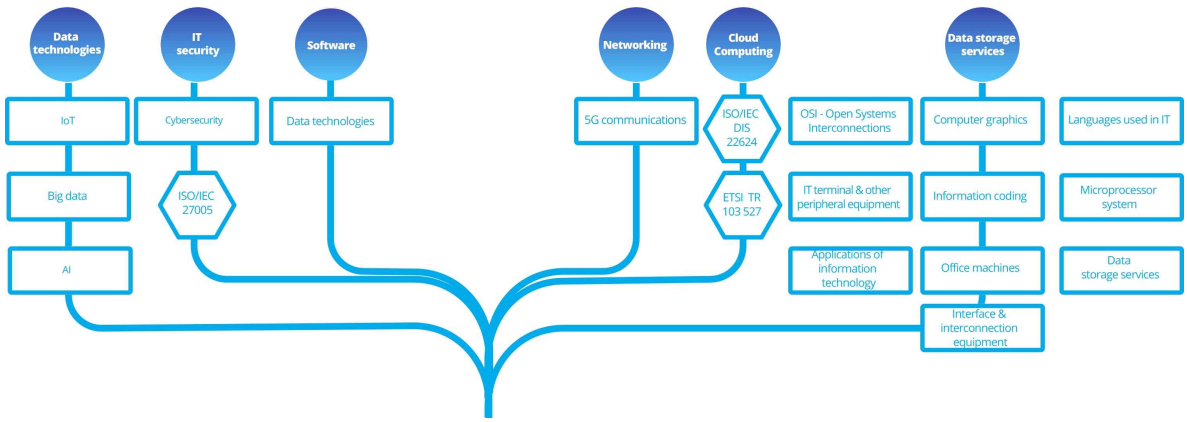
EUOS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차별화된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

1) 토론 그룹 : ICT 주제에 대한 새로운 토론을 시작하고, 기술작업그룹(TWG)* 생성, 문서 생성 및 편집, 라이브 채팅, 화상 통화, 이벤트 일정이나 ICT 표준화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여 다른 ICT 구성원과 대화할 수 있는 협업 네트워킹 공간

* TWG(Technical Working Groups) : 현재 8개 주제(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공간, 데이터 상호운용성, 사이버보안, 스마트시티, 신뢰정보)에 대한 리딩 전문가와 계약. 최종 보고서를 통해 'ICT표준화유럽다중이해관계자플랫폼(European Multi Stakeholder Platform on ICT Standardisation)'에 안건 제시 및 관련 표준화개발기구의 관심 유도. 기술 분야 외에, 표준화아카데미 전문가그룹을 신설하여 ISO 아카데미와 ETSI/CEN/CENELEC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 교육 자료 개발 추진

2) 표준 저장소 : 핵심 ICT 분야를 다루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표준들의 저장소로, 원활한 검색을 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사용자 친화적인 검색 기능을 갖춤

(참고) 인터랙티브 맵을 통한 표준 내비게이트 웹 메뉴 (출처 : https://www.standict.eu/euos)



☞ (기사원문) https://www.standict.eu/news/standicteu-2023-rolls-out-its-euos-european-observatory-ict-standardisation-eye-global

16. 유럽연합, 2021 ICT 표준화 롤링 플랜 발표 (03월 18일)

유럽연합은 2021년 ICT 표준화 롤링플랜(2021 Rolling plan for ICT standardisation)*을 발표하였다.

* ICT 표준화가 지원하는 EU 정책 영역에 대한 활동 아이템 제시. 매년 MSP(Multi-stakeholder platform)의 전문가

들과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매년 업데이트. MSP는 EU 회원국 대표, 유럽 및 ICT 분야 국제 표준화기구, 산업계, 중소기업, 소비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

롤링 플랜에는 핵심 기반기술과 보안, 사회적 도전,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혁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존 4개의 영역을 유지하고, 37개 주제별 180여개의 활동 아이템을 제시하였다.

금번 버전에서는 '사회적 도전' 영역에서 'COVID-19'와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절차', '지속가능한 성장' 영역에서 '순환 경제'와 'U-스페이스'의 4개 주제가 추가되었다.

각 영역별 주제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과 추진현황, 표준화기구별 표준 개발 동향, 활동 아이템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다양한 기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수평적 기술의 중요성을 다루는 '수평적 빌딩블록'라는 별도의 챕터를 제공한다.

1) 핵심 기반기술과 보안

- 5G
-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공공부문 정보
- IoT
- 사이버 보안 / 네트워크, 정보 보안
- 전자 신분증과 신뢰 서비스
- 전자 프라이버시
- 연구데이터용 전자인프라와 컴퓨팅집약적과학
- 광대역 인프라 맵핑
- ICT 제품과 서비스 접근성
- 인공지능
- 유럽 위성항법시스템(EGNSS)

2) 사회적 도전

- 전자 건강, 건강한 삶과 노화,
- 교육, 디지털 기술과 학습
- 비상 통신
- 전자 정부
- E-CALL *긴급구난체계
- COVID-19
-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절차

3)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혁신

- 전자 조달, 사전 및 사후 보상
- 전자 송장(e-invoicing)
- 소액 결제(retail payments)
- 디지털 영화 보존
- 핀테크와 레그테크 표준화
-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

4) 지속가능한 성장

- 스마트 그리드와 스마트 미터링
- 스마트시티와 커뮤니티/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기술과 서비스
- ICT 분야 환경 영향
- 유럽 전자통행료징수서비스(EETS)
- 지능형교통시스템 ITS-CCAM과 e모빌리티
- 유럽 산업의 디지털화
- 로봇과 자율시스템
- 건설-빌딩정보모델링
- EU해양영역에 대한 공동정보공유환경(CISE)
- 수자원 관리 디지털화
- 유럽 단일영공(Single european sky)
- U-스페이스 *저고도 비행구역
- 순환 경제

☞ (기사원문) https://ec.europa.eu/growth/content/2021-rolling-plan-ict-standardisation-released_en